***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4. 6. 3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사진 3일 강원도 강원도청에서 열린 'LS전선 공장증설 투자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김진태 강원도지사,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심규언 동해시장,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이사, 김원배 LS전선 해저생산부문장** |
| **문의** | **강철 팀장(02-2189-9607, 010-9447-7079,** [**ckang@lscns.com**](mailto:ckan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동해 1천억 투자,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  **■ 해저 5동 신규 건설, HVDC 생산 4배 증대**  **■ 에너지 안보, 신재생e 확대로 HVDC 시장 성장**  **■ LS마린솔루션, LS에코에너지와 글로벌 시장 선점**  LS전선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강원도 동해시에 약 1,000억원을 추가 투자, 해저케이블 공장을 증설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금은 연면적 19,451㎡(5,883평) 규모의 해저케이블 5동을 짓는 데 사용된다. 내년 하반기 5동이 완공되면 HVDC 케이블 생산능력은 지금의 약 4배로 늘어난다.  이번 증설은 지난 해 8월 해저케이블 4동의 증설에 1,555억원의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1년도 안 되어 나온 추가 투자다.  LS전선은 지난 해 5월 국내 유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HVDC 케이블 전용 공장인 해저케이블 4동을 준공했다.  HVDC는 AC(교류)에 비해 대용량의 전류를 저손실로 멀리 보내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고 있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도 HVDC 케이블을 사용한다.  회사 측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HVDC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 확대로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최근 미국 공장 건설, LS마린솔루션의 설비 투자, LS에코에너지의 유럽, 아시아 사업 추진 등 자회사들과 협력,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